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최일선	직급	부연구위원(실장)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이슬기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o 정부와 지역 협력 주도의 해양관광 네트워크 성공사례로 대표되는 일본 광역관광루트 현지조사 수행 o 현장답사와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책 추진상의 성공 및 실패요인 도출, 국내 섬·바다·강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관련사업 o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기본) (사업기간: 2024.1.1.~2024.10.31.)					
출장기간	2024.5.7.(화)~5.10.(금)(3박 4일)			출장지	일본(후쿠오카, 히로시마, 나오시마)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5.7.(화)	항공이동(부산→후쿠오카)		이동	KE2135(09:05-10:05)	
		후쿠오카→히로시마		이동	열차(JR)	
	5.8.(수)	(오전)세토우치광역관광주유루트 중 히로시마지구		답사 및 관계자 면담	-	
		(오후)세토우치관광기구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5.9.(목)	(오전)우노항→나오시마		이동	페리	
		(오전/오후)나오시마섬		답사 및 나오시마문화마을 관계자 면담	-	
	5.10.(금)	(오전)히로시마→오카야마시		이동		
		(오전)구라시키 도시미관지구		답사 및 구라시키 운하 네트워크 관계자 면담		
		(오후)오카야마역→후쿠오카 공항		이동	JR	
		(오후)항공이동(후쿠오카→부산)		이동	KE2138(20:00-20:55)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현재 수행 중인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사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의 이행과정과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컨셉을 도출함 ○ 주요 성과 - 세토우치광역관광주유루트 중 히로시마지구의 여객선과 크루즈를 활용한 바닷길 재해석 방안을 산업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의 가치를 도출함 - 세토우치 브랜드 컨셉,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 개발, 빈집 리노베이션 등 대표 사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관광 정책 수립 및 사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함 - 나오시마 예술의 섬 답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관광의 융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 구라시키 도시미관지구 답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방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발전시킨 우수사례를 우리나라 구도심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굴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본 출장을 통해 도출된 관계자 면담 결과 및 답사 내용은 보고서에 수록할 계획이며, 과제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기본과제의 추진과제 중 핵심인 바닷길 활용과 관련하여 세토우치광역관광주유루트의 여객선과 크루즈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본 과제의 시범모델지인 남해안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바닷길 재해석 방안 마련 - 지자체, 관광공사, 민간 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광역 관광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지역 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방안제시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5월 8일(수) 오전 세토우치광역관광주유루트(히로시마지구) 답사								
수행계획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촉진사업' 중 해양관광에 특화된 세토우치광역관광주유루트 주요 코스 답사 □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세토우치, 바다의 길' 모델코스 파악 및 우리나라 지역에 적용 가능성 조사 * 세토우치는 효고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등 7개의 현, 29개의 시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에서 가장 큰 내해로, 해양관광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3개의 세부루트를 개발 								
수행결과	□ [세토우치, 바다의 길 주요 컨셉] 세토우치의 브랜드 컨셉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평온한 바다와 도서, 산촌이 자아내는 경치가 힐링과 편안함을 주는 장소 ② 해상교통으로 발달한 역사, 문화, 예술, 산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 ③ 조류의 혜택인 바다 진미와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감귤 등 식문화 및 지역 특산품임. 이러한 세부 컨셉을 포괄하여 '있는 그대로 일본의 매력은 이곳에 있다: 세토우치'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두고 있음. 세토우치는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여섯 가지의 아이템을 테마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크루즈, 사이클링, 아트, 지역산품, 숙소, 먹거리). 세토우치 광역주유루트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세부루트와 컨셉이 있으며, 이러한 코스의 추진 주체는 광역관광주유루트형성계획의 실시주체인 세토우치 관광추진기구 등이며, 협력기관은 관광청을 비롯하여 지방운수국, 일본정부 관광국(JNTO) 등이 있음 < 세토우치 광역주유루트의 세부 모델코스명과 컨셉 > <table border="1"> <thead> <tr> <th>모델 코스명</th><th>컨셉트</th></tr> </thead> <tbody> <tr> <td>신 골든루트 ~새로운 서일본 발견 여행</td><td>- 세계에 자랑하는 "세토우치"의 경치와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가 넘치는 일본의 "장인"과 "자연 풍경"</td></tr> <tr> <td>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미의 루트</td><td>- "세토우치"에 넘치는 역사·전통과 예술을 만끽 - 세계 유수의 내해와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td></tr> <tr> <td>하늘과 섬과 바다에 녹아드는 사이클링 루트</td><td>-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자전거 타기 (렌탈 사이클링 위주로 설정)</td></tr> </tbody> </table>	모델 코스명	컨셉트	신 골든루트 ~새로운 서일본 발견 여행	- 세계에 자랑하는 "세토우치"의 경치와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가 넘치는 일본의 "장인"과 "자연 풍경"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미의 루트	- "세토우치"에 넘치는 역사·전통과 예술을 만끽 - 세계 유수의 내해와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	하늘과 섬과 바다에 녹아드는 사이클링 루트	-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자전거 타기 (렌탈 사이클링 위주로 설정)
모델 코스명	컨셉트								
신 골든루트 ~새로운 서일본 발견 여행	- 세계에 자랑하는 "세토우치"의 경치와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가 넘치는 일본의 "장인"과 "자연 풍경"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미의 루트	- "세토우치"에 넘치는 역사·전통과 예술을 만끽 - 세계 유수의 내해와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								
하늘과 섬과 바다에 녹아드는 사이클링 루트	-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자전거 타기 (렌탈 사이클링 위주로 설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연안크루즈] 세토 내해 세토우치의 여러섬을 둘러보는 「씨 스피카(Sea Spica)」 페리 상품이 현재 운영 중에 있음. 5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람선 투어는 히로시마와 미하라를 일주하며 다양한 섬을 방문할 수 있는데, 섬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임(토끼섬으로 유명한 오쿠노시마섬 등). '23년 G7 히로시마 서밋 개최 시 정상들이 이 페리상품을 이용한 바 있음. 100% 민간에서 운영하며, 금, 토, 일만 운영



세토우치 관광 크루즈 씨스피카호



운항 경로

- [페리+관광열차 복합상품] 히로시마에서 물 위의 신사로 유명한 '이쓰쿠시마 신사'까지 이동하는 관광 상품으로 '페리+관광열차 복합상품'을 운영 중에 있음. 히로시마항에서 미야지마항으로 이동할때는 페리를 이용(50분 소요)하고, 돌아올때는 관광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되는 etSETOra(에토세토라)는 특별하게 개조된 열차 안에서 히로시마에서 엄선한 디저트나 칵테일 등을 즐길 수 있는 상품임. 아침 9시 30분에 히로시마항에서 출발하면 오후 6시에 돌아오는 관광코스로 가격이 17,000엔으로 다소 비싼 상품에 속함. 이 관광상품에는 JR이 일부 투자함.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페리 탑승구



에토세토라 관광열차 내부

- [다크투어리즘] 히로시마는 다크투어리즘을 대표하는 도시로 원폭 투하 직후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히로시마 시내의 원폭돔, 평화기념공원, 오리즈루 타워 등이 밀집해 있었음. 이러한 공간이 일관되게 표현하는 메시지는 '평화'임. 특히 원폭 돔 동쪽에 위치한 오리즈루 타워는 직접 접은 오리구루 학을 던지는 이벤트를 개최하며 원폭 투하 전후의 현재 도시 풍경의 변화를 통해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컨셉을 가지고 있음. 히로시마 원폭 참상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원폭의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를 평화의 생산지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보였으며, 일본 정부와 다양한 기업, 주민들의 노력으로 히로시마가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데 무게를 둔다는 인상을 받음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유역중심의 한국형 광역 관광 주유루트 개발 필요성 도출: 섬·바다·강을 아우르는 광역관광루트 개발 및 브랜딩
- 교통 인프라 연계 및 개선 방안 마련: 섬·바다·강을 잇는 교통 인프라 연계 및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연계 페리, 크루즈, 관광열차 등 특색있는 교통수단 도입 및 관광상품화 방안 도출

수행결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5월 8일(수) 오후 세토우치관광기구 관계자 면담
수행계획	□ 세토우치 광역관광주유루트의 운영기관 담당자를 만나 중앙-지역-추진기구(DMO)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배경과 코스개발 주안점, 홍보전략 청취 □ 세토우치 DMO 조직, 역할, 자금 및 운영 방향 청취 □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민들과 갈등조정 사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청취 * 일본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관광 관련 주체가 협력하는 지역관광경영조직(DMO)를 적극 활용중에 있음. 특히 세토우치 DMO는 단일 지자체 행정구역을 넘어 관광루트를 직접 개발하고 대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연계 협력 사업 추진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수행결과	□ 면담개요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시/장소 : 2024. 5. 8.(목) 15:00-17:00 / 세토우치 DMO 회의실 - 참석자 : Hiroshi Sakamoto(Senior Managing Director), Osamu Kuniyasu(Vice General Manager), 최일선 실장, 이슬기 전문연구원, 통역사 1. “세토우치 바다의 길” 관광루트 개발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e.g. 테마설정,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등) : 현재 ‘바다의 길’ 컨셉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음. ‘바다의 길’ 컨셉은 현 세토우치 DMO가 만들어지기 전 발족된 ‘바다의 길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개발했으며, 그 이후 DMO가 만들어 지면서 ‘바다의 길’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비롯하여 다른 복합적인 컨셉에 중점을 두고 있음. 세토내해가 물자를 운송하는 주요 바닷길 역할을 하면서 일본문화와 해외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었지만,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바닷길 쓰임이 점점 줄어들었음 2. 그렇다면 현재 페리나 크루즈 등 해상교통 수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가? : 조선통신사가 남긴 한국의 유적과 문화를 관광화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바닷길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함. 세토내해의 섬을 방문하는 페리와 크루즈 상품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탑승객은 미국과 유럽 관광객임 3. 세토우치 권역의 섬~바다~강을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사례가 있는지 (or 섬과 바다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상품 개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이쓰쿠시마 신사로 이동하는 페리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임. JR과 연계된 관광상품도 있어 페리와 열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쓰쿠시마 신사로 이동하는 다양한 교통편이 있지만, 뱃길 시간이 최단거리임. 다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이 외에도 히로시마에서 오노미치와 미하라항으로 이동하는 페리가 있는데 G7 정상회담때 홍보될 만큼 섬마다 다른 테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는 금, 토, 일 주말에만 운영하며 100% 민간에서 운영함. 주로 이러한 페리나 크루즈 상품은 해외 관광객들이 주요 승객임. 이 외에도 히로시마 오노미치항에서 출항하여 세토우치 내해에서 체류하는 크루즈 상품이 있음. 2016년에 건조된 이 배는 실내 온천, 바, 호텔 등 최고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박 3일, 3박 4일 상품으로 구성됨. 웰니스 전용으로 개발된 상품이며, 주로 해외 관광객, 동남아 부유층이 이용함. 현재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대성공을 함(guntu.j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4. 세토우치의 7개 현을 모두 연결하는 페리가 있는가? : 일회성 행사용으로 7개 현을 연결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페리노선은 없음 5. 세토우치 관광 프로그램은 현 단위로 이루어지는가? 광역단위로 이루어 지는가? : 히로시마를 거점으로 현단위로 운영됨 6.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 세토우치에는 SEA PASEO, SEA SPICA 등 다양한 규모의 페리가 운영되고 있어 페리 이용객도 많은 편임 7. “세토우치 바다의 길” 관련 정보제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로 하는지, 관광객의 주요 정보 경로는 무엇인지? : 세토우치 DMO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시장규모, 친화성, 경쟁 등 3가지 관점에서 타깃 시장을 설정함.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가 세토우치의 중점 시장 국가임. 우리는 대상국가 별로 마케팅 에이전시를 설치해 각 현과 연계하여 각국의 선호도에 맞는 정보를 현지 매체에 제공하고 해외현지 여행사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토우치 상품의 기획 및 판매 촉진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활발하게 실시함 8. 한국의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토우치 DMO가 제안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나 협력 아이디어는? : 강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을 통하면 교통의 편리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규모의 크루즈 상품 개발을 추천함. 다만 선박의 디자인, 선박에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등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함 9. 세토우치 DMO와 지역 관광사업체 간 협력 사례가 있는지, 각 사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 관광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팸투어 항공료 지원 정도임. 다만 특산품 개발 업체의 경우 세토우치 DMO 멤버스 회원기업 연계 등을 통해 세토우치 브랜드 등록 상품을 중심으로 세토우치 페어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세토우치 브랜드 등록 상품의 인지도 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10. 세토우치 DMO가 최근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키워드, 전략이 있는가? : 2016년 DMO 설립 후 브랜드 컨셉은 오션틱으로 유지하고 있음. 세토우치는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주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션틱’을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성은 모든 관광상품의 기본이 되는 컨셉으로 생 각함 11. 세토우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본스러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세토우치는 일본의 대표 바닷길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역사와 문화가 현재 많이 남아있 음. 또한 섬이 많은 지역으로 문화가 단절, 격리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키운 음식을 활용한 상품이라던가 힐링과 여유를 메인으로 강조하여 유럽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음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세토우치 DMO 청사와 면담모습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국제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방안 도출: 세토우치 DMO의 해외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섬·바다·강 연계 관광에 적합한 타겟 시장 선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지속가능한 관광 컨셉 적용 필요: 세토우치의 지속가능성 컨셉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섬·바다·강 연계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 적용 필요
업무③	5월 9일(목) 오전/오후 나오히마문화마을 답사 및 관계자 면담
수행계획	□ 나오히마 예술의 섬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예술적 테마관광을 결합하여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조성한 대표사례로, 관광과 예술문화 접목, 세계복합유산 등재 연계 등의 관점에서 검토 * 일본의 지중해라고 일컬어지는 나오히마섬은 세토내해 동부에 위치한 섬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업중심의 작은 섬마을이었지만 안도다다오가 나오히마 섬 전체를 예술의 섬으로 조성한 이후 품격있는 문화관광 이미지로 다시 태어남
수행결과	□ [나오히마 섬 개요] 나오히마는 일본 중남부 가가와 현에 속한 인구 3,300여 명의 작은 섬으로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8km²)임. 연간 50만 명이 찾아오는 일본의 대표 관광지로 3년마다 열리는 세토우치국제예술제의 해에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나오히마와 주변 섬에 방문함. 고령화율은 33.9%(2020년 기준)로 노인들이 많으며, 주택 한쪽을 개조해 식당, 카페, 기념품 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음. 1990년대부터 베네세 홀딩스 회장의 주도로 예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에 세운 베네세하우스 뮤지엄이 나오히마 예술섬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되었음. 이후 지중미술관과 이우환미술관 등이 잇달아 개관한 데 이어 폐가와 빈집을 예술공간으로 만든 '이에(家) 프로젝트'가 접목되면서 섬 전체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변모했고, 이를 통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만 40만명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명소로 탈바꿈함.   나오히마 섬으로 이동하는 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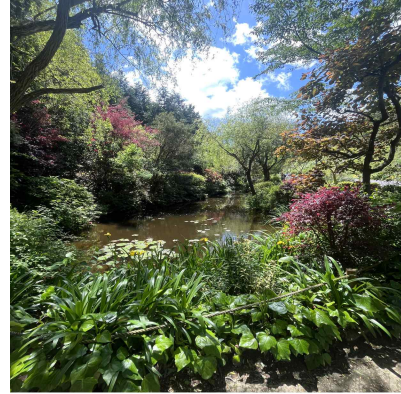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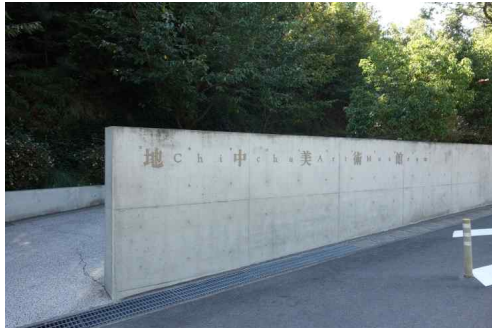
- [예술과 건축의 공존] 나오시마 개발의 테마는 '자연과 건축, 예술의 공존'임.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장소'로서 2004년에 설립된 지추 미술관은 아티스트와 건축가가 서로 독자적인 구상을 제안하면서 만들었음. 아티스트 이우환과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협력하여 만든 이우환 미술관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 속에 숨어 있는 듯한 전경이 특징임. 약 100년 전에 세워진 오래된 민가를 활용한 안도 다다오 뮤지엄은 나무와 콘크리트, 빛과 어둠 등 대립하는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임. 안도 다다오의 활동 사진과 스케치, 모형을 전시함으로써 공간 이 자체를 작품화하였음



이우환 뮤지엄 입구



모네의 연못



지추미술관 입구



베네세 하우스

- [예술과 일상의 공존]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예술작품을 매개로 외지인들과 소통하며 생기를 얻어가는 섬 주민들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소이치로 회장)." 나오시마의 주민참여를 통한 활력 찾기는 1998년부터 시작한 '이에(집) 프로젝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버려진 민가나 절, 신사, 치과, 소금창고 등을 사들여 그들이 살았던 시간과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재창조해 갔음. 특히 '집 프로젝트' 1호 '가도야'는 200년 된 버려진 집 내부를 고쳐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250개의 디지털 숫자를 띄웠는데, 디지털 숫자가 변하는 속도는 250명의 주민들이 각자 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임. 고령자 중심인 주민들이 작품의 장소를 안내하기 시작하면서 '나오시마 관광 자원봉사자 가이드회'가 자주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가꾸기 사업을 유도하였음.



안내사무소



나오시마695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가도야 전시관	안도 다다오 뮤지엄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연안지역의 유휴공간 및 건축물의 예술적 재생 방안 도출: 나오시마의 이에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유역을 중심으로 버려진 민가, 창고, 공공시설 등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지역 주민참여형 정책추진 방안 도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필요성 도출, 이를 통해 민관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마련	
업무④	5월 10일(금) 오전 구라시키 도시미관지구 답사 및 관계자 면담	
수행계획	□ 구라시키 도시미관지구는 지방의 고유문화를 보존, 현대적 감각으로 계승·발전시켜 관광 상품화한 대표 사례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계측면에서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 일본 최초의 사립 서양미술관인 오하라 미술관, 옛 구라시키 방적 공장을 재개발한 복합문화센터, 운하 선상체험 등 구라시키와강을 주변으로 개발된 관광상품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인프라 연계방안 모색	
수행결과	□ 국가 보존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구라시키 도시미관지구는 관광안내소와 은행, 우체국 등도 낡은 건물을 개조하여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서양문화의 건물이 다수 남겨져 있는 모습이 특징이었음.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에도시대 이 지역을 관통하는 구라시키가와강에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상품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상인들이 물자 관리를 위한 창고와 상업시설을 건설하면서 현재의 미관지구를 형성함. 이곳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관광객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뱃사공이 운영하는 나룻배도 실제 국내외 관광객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음. 옛 구라시키 방적 공장을 재개발한 아이비스퀘어(복합교류시설) 내에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방과, 레스토랑, 박물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민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관도 위치해 있음. 구라시키 미관지구의 성공 비결은 지역자산과 역사, 운하 등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시도했다는 점임. '구라시키 미관지구 프로젝트'는 70년에 걸쳐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49년 '구라시키 도시아름다움협회'를 결성한 주민운동으로 1968년 구라시키시 전통미관보존조례 제정, 1978년 구라시키시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보존조례 제정으로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구라시키 미관지구는 해외관광객보다는 일본관광객의 비중이 더 많아 보였고, 결혼사진 촬영, 수학여행, 동호회 모임 등의 이유로 방문한 일본인들의 모습이 이색적이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운하와 나룻배



오하라 미술관



미관지구 옆 주민 주거지역



미관지구

본 과제에서의 활용 방안

- 구도심과 수변 공간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 방안 도출: 구라시키 미관지구와 구라시키가와강의 연계 사례를 참고하여, 구도심의 역사문화 자원과 수변 경관을 결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창출 방안 마련
- 수변 경관을 활용한 도시 재생방안 도출: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섬, 바다, 강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구도심의 역사문화 자원, 섬의 자연 및 생태 자원, 바다와 강의 레저 자원 등을 연계한 테마 관광상품 개발 필요